

# 공포연극·영화에 더위 싸~악

연극 '디데이'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 9월 26일까지  
영화 '더 시크릿 하우스' '그루지:죽은 자의 저주' 등 다음주 개봉

111년만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숨이 턱턱 막히는 요즘,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연극과 영화로 잠시나마 더위를 잊어보는 것은 어떨까.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는 스릴러 공포연극 '디데이(Death-Day)'를 진행중이다.

'디데이'는 현대의 살인사건에서 겨우 살아남은 해나와 출소한 가해자 김현수, 그 사건을 취재하려는 기자 사이에 일어난 일을 담아낸 스릴러 공포극이다.

8년전, 현대의 스톱킹 살인사건으로 목숨을 잃을뻔한 해나는 당시 겪은 충격으로 부분 기억 상실증에 걸려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 어느 날 뉴스에서 가해자 김현수의 출소 소식이 들려오고, 해나는 부분 기억 상실증과 더불어 매일 환각과 환청에 시달린다.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해나는, 의사에게만 의지하며 나날이 위태로운 하루를 보낸다. 그 때 특종을 위해 사라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회부 기자가 취재를 위해 정신병원에 잠입하고, 때마침 김현수는 출소 직후 정신병원을 찾아오는데...

연극은 9월 26일까지 진행되며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은 오후 3시 7시, 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3시에 만날 수 있다. 티켓 가격 4만원. 문의 062-360-8433.

최신 공포영화들도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다.

오는 8일 영화 '더 시크릿 하우스'가 개봉한다. 청년 짝과 어린 세 동생은 뽀빠이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살기 위해 엄마가 숨진 사실을 비밀로 하며 지낸다. 영화는 짝이 외출하고 온 뒤 집에서 벌어지는 불가사의한 일들을 담았다.

'그루지:죽은 자의 저주'(8월 9일 개봉)는 생일파티를 하기 위해 빌린 집에서 벌어지는 저주를 다룬 말레이시아 공포물이다.

10일 개봉하는 '슬렌더 맨'은 유럽과 북미지역 괴담에 등장하는 괴물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다. 괴물은 큰 키와 이목구비가 모호한 얼굴, 축 늘어진 팔을 갖고있다. 무자비하게 아이를 납치하는 괴물과 이를 저지하려는 인간의 싸움을 그린다.

15일 개봉하는 '목격자'(조규장 감독)는 올 여름 개봉하는 한국영화 대작 가운데 유일할 스릴러물이다. 아파트 한복판에서 벌어진 살인을 목격한 순간, 범인의 다음 타깃이 된 목격자와 범인이 펼치는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그린다.

배우 이성민이 어젯밤 살인을 봤지만 못 본 척 해야만 하는 목격자 상흔 역을 맡았다. 딜레마에 빠진 목격자의 현실 감 넘치는 감정연기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한다.

'컨저링:마녀의 인형'은 16일 개봉한다. 주인공 아델라인은 딸 클로이와 단둘이 산다. 아델라인은 우연히 인형 안에서 살아있는 마녀의 영혼이 자신의 딸 클로이를 데리고 있다는 내용의 메모를 발견하고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한다.

스페인 영화 '죽음의 리무진(Glass Coffin)'도 같은 날 개봉한다. 배우 아만다(파올라보렐리)가 시상식에 참여하기 위해 리무진에 타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아만다는 밀폐된 리무진에서 탈출하려고 하지만 실패한다. 그 순간 스피커에서 그가 성공을 위해 저지른 추악한 행동들이 하나씩 들리기 시작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젊은 명창 임현빈 '사제동행- 보성소리'

토요상설공연 내일 오후 3시

'토요상설공연 흥겨워라' 2018하반기 공연이 오는 4일 공연을 시작으로 하반기 일정을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오후 3시 서석당에서 젊은 명창 임현빈(남원시립국악단 수석단원)의 '사제동행(師弟同行)-보성소리'로 막을 연다.

전통문화관은 최근 전국의 국악인 및 국악단체를 대상으로 하반기 출연할 작품을 공모를 진행해, 최종 10팀을 선발했다. 여기에 무등울림 축제 행사 등 전통문화관 자체 기획으로 초대되는 8개 팀을 포함, 총 18개 팀이 하반기 무대에 오른다.

하반기 첫 무대를 여는 젊은 소리꾼 임현빈은 명창 임방울 선생의 손자다. 중학교 2학년까지 북을 배우다 고등학생이 돼 판소리 공부를 시작했다. 1995년 동아국악콩쿠르 판소리 일반부 금상, 1999년 전국고수대회 명고부 대상, 2011년 춘향국악대전 판소리 명창부문 대통령상, 2017년 KBS 국악대상 판소리상을 수상했다. 국립장극단에 재직하며 '산불' 규북, '춘향' 풍류,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 등 주역을 맡았으며 2010년부터 남원시립국악단에서 활동해왔다.

이날 공연은 임현빈과 그의 제자 정인성이 함께하는



임현빈

무대로 김세종제 춘향가 중 '과거장 대목', 강산제 심청가 중 '심봉사 눈뜨는 대목'을 들려줄 예정이다. 무료이며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오는 11일은 '광복 73돌, 북녘소리 초청공연'을 선보인다. 국가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보유자 김광숙 명창과 제자들이 함께 출연하며 북한에서 공연예술가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평양통일예술단도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문의 062-232-1595.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작사랑·그런날·독백...우리가 꼭 부르기

10일 광주예총 방울소리공연장

광주전남우리가꼭부르기가 10일 오후 7시 광주예총 방울소리공연장에서 112회 가곡부르기 공연을 연다.

이달의 배우는 노래는 이한현 시에 김진선이 곡을 붙인 '작사랑'이다. 정다운 노래로 김진선 작곡가의 '그런 날', '독백'을 함께 부른다.

이번 공연에는 베이스 최철을 초대해 한국가곡 '장터 아리랑', 우리민요 '신교산 타령'을 선보인다.

다 함께 부르는 추억의 노래로는 해마다 여름이 되면 누구나 불러보는 동요 '초록바다'를 시작으로 '떠나는 배', '도라지꽃', '바위 고개'를 준비했다.

시상송 시간에는 자매 낭송가 김희란·김민숙이 나태주 시인의 '사랑이여 조그만 사랑이여'를 낭송하며 꿈



김진선

최철

나무연주무대에 강예령(목포 오룡초 6)양이 무대에 오른다.

사랑의 노래로는 '산촌', '희망의 나라로'를 선보인다.

또다문화합창단인 '아시아소리모아합창단'이 출연하며 '우가사 여성중창단', '우가사 남성중창단'도 무대를 꾸민다.

회원연주로는 박원자, 한미경, 유은경, 정옥남, 김왕수, 김종래 등이 참여한다. 문의 010-2694-4592, 010-2665-2328.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전통문화관 하반기 수강생 모집

전통문화관이 하반기 전통문화예술강좌와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 부문은 ▲판소리 초급반·중급반·고급반 ▲판소리 고급반 ▲가야금명창 ▲전통음식의 시골음식과 떡·한과·음정 ▲태평화 ▲전통다례 ▲민화 ▲청소년 가야금명창 등 총 13개 강좌로 각각 15회 운영한다.

수강 신청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통문화관 홈페이지, 직접방문, 전화 접수 가능하다. 강좌 수강료는 10만원(재료비는 별도). 하반기 강좌는 9월 10일부터 12월 22일까지 매주 1회씩 총 15주에 걸쳐 진행된다.

강사진은 ▲판소리 초급반의 박미정(시도무형문화재 제16호 판소리춘향가 전수조교), 중급반의 방성춘(방아순)(시도무형문화재 제16호 판소리춘향가 보유

자), 이순자(시도무형문화재 제1호 남도판소리 보유자), 고급반의 이임례(시도무형문화재 제14호 판소리강산제 보유자) ▲판소리고급반 김남중(시도무형문화재 제11호 판소리고급반 보유자) ▲가야금명창 이영애(시도무형문화재 제18호 가야금명창 보유자), 황승옥(시도무형문화재 제18호 가야금명창 보유자) ▲전통음식 최영자(시도무형문화재 제17호 남도의례음식 보유자), 이애섭(시도무형문화재 제17호 남도의례음식 보유자) ▲태평 송광무(시도무형문화재 제21호 태평 보유자) ▲전통다례 김영미(한국자문화협회 사법) ▲민화 이성임(회화작가) ▲청소년 가야금명창 문명자(시도무형문화재 제18호 가야금명창 보유자)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통문화관 홈페이지(www.gtc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232-150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계절의 보양식 **삼계탕**  
시원한 여름 별미 **물회**  
담백한 별미 **민어회**

과죽이 **맛집**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 7월말 · 8월초 정상 영업합니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